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자동차 정비수가 인상, 보험사 vs 정비업계 갈등

- 최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지연되면서 서울, 경기, 인천의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은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를 촉구함.
 - 정비업계는 2009년 말 한국산업관계연구원(이하 산계원)이 국해부의 용역으로 만든 적정 정비요금*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입장임.
 - * 정비요금이란 차량의 손상 부위에 따라 평균 수리시간인 표준작업시간에 공임률(시간당 수리공 인건비)을 곱한 것임.
- 산계원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적정 정비수가를 지역에 따라 시간당 현재 18,228~20,511원에서 최고 50% 높은 수준인 19,029~ 30,894원으로 분석함.
 - 이는 지역별 원가 18,096~23,502원에다 제조업 평균 이익률 5.16%와 중소기업 정상 가동률 80~100%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임.
 - 가령 수도권에 포함된 A지역의 경우, 시간당 순원가는 23,502원이고 적정 정비수가는 가동률 100%일 때 24,715원, 가동률 80%일때는 30,894원까지 늘어나게 됨.
 - 이 같은 정비수가 조정이 지난해 여름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를 넘겨서도 정부의 별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정비업계가 격앙된 것임.
- 한편,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이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못 올리는 상황에서 정비수가 인상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.
 - 손보사들은 2008년 기준 조사표본업체 231개 중 92.2%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, 소비자에게 추가 보험료 부담을 주면서까지 정비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임.
 - 향후 손보사들은 공동으로 표준 정비업체를 만들어서 원가를 분석하거나 종합서비스센터를 통해 고객과 우량 정비소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.

(보험정비요금 공표 더 이상 미루지 말라,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, 1/21)